

ep.1

만나서 어색합니다.

-- 는 베니니

- 는 스티븐의 말이다.

(담배를 피우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로베르토 베니니.)

(설탕을 쏟아붓고 커피잔을 들면서 손을 덜덜 떤다.)

(커피 다섯 잔.)

- 안녕하세요, 스티브죠?

- 스티븐이에요, 반가워요.

- 앉아요.

- 로베르토?

- 지금 흥분 상태에요.

- 네. 흥분 상태요? 나도예요.

- 네.

- 완전.

(스티븐의 커피에도 설탕을 듬뿍 넣어버리는 베니니)

- 뭐 마셔요, 커피?

- 네. 좋아하죠. 당신은요?

- 커피 좋죠.

- 좋아해요?

- 그럼요.

- 스티브!

- 스티븐인데.

- 스티브. 네.

- 커피 좋아해요.

<테이블 부감 속. 체커보드 상판과 널브러져 있는 커피 5잔. 병에 들어있는
설탕과 담배가 쌓여있는 유리 재떨이>

- 뭐 할 거예요?

- 그냥 쉬면서 담배나 피울까 봐요.

- 그래요?

- 담배엔 커피가 딱인 것 같아요. (베니니가 담배를 말고 있다.)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녜요?
- 아뇨, 커피는 몸에도 좋잖아요
 - 난 자기 전에도 마셔요.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잠자리에 들면 꿈을 빨리 꾸거든요.
자동차 경주처럼 꿈을 꿔요. 차 안에 카메라를 넣어두고 훑힐 지나가는 것처럼요.
꿈 다음에 꿈, 꿈 다음에 꿈, 꿈 다음에 꿈, 꿈 다음에 꿈.
- 다음날 사람 사람들이 무슨 꿈을 꿐냐고 하면, 시간이 없다고 하죠. 다 얘기할 수 없다고요.

(손을 덜덜 떨면서 커피를 들이키는 베니니. 커피를 마신 직후 담배를 태우는 스티븐)

- 담배 피워요?
- 커피를 마실 때만요.
- 우리 엄마 알아요?
- 당신 엄마를 아느냐고요?
- 네.
- 글쎄요, 모를걸요.

<테이블 부감 솟. 체커보드 상판과 널브러져 있는 커피 5잔. 병에 들어있는
설탕과 담배가 쌓여있는 유리 재떨이. 그리고 구겨진 카멜 담배 팩>

- 커피는 얼려야 맛이죠
- 맞아요
- 제빙 그릇에 커피를 넣고 막대를 넣는 거예요. 어렸을 때 하던 것처럼요.
카페인 막대사탕인 거죠.
- 좋네요. 뭔소린지 모르겠지만.

<테이블 부감 솟. 체커보드 상판과 널브러져 있는 커피 5잔. 병에 들어있는
설탕과 담배가 쌓여있는 유리 재떨이. 그리고 구겨진 카멜 담배 팩. 건배.>

- 내 목소리 들려요?
 - 뭐라고요?
 - 내 말 들리냐고요. 여기 시끄럽네요. 잘 안 들리지 않아요? 자리 바꿀까요?
 - 네, 고마워요. 바꿉시다. (둘은 자리를 바꾼다). 여기 좋네요.
- (베니니는 자리를 바꾼 후 주변을 살피는 스티븐의 눈치를 본다) 괜찮나요?
- 여기가 더 나아요.
 - 그럼…
 - 괜찮아요? 나도 거기가 좋아요.
- (다시 자리를 바꾸는 베니니와 스티븐)

- 스티브.

- 스티븐.
- 그래요, 스티브.

<테이블 부감 솟. 체커보드 상판과 널브러져 있는 커피 5잔. 병에 들어있는 설탕과 담배가 쌓여있는 유리 재떨이. 그리고 구겨진 카멜 담배 팩. 건배.>

- 언제 떠나요?
- 미국요?
- 아뇨, 여기요.
- 아, 사실 곧 가야 해요. 치과 진료가 있거든요. 근데 가기 싫어요. 치과가 싫거든요.
- 그렇군요.
- 근데 가야 해요.
- 네.
- 안 간지 꽤 됐어요.
- 그렇군요, 안 가요?
- 가야 하는데, 안 가고 싶어요.
- 안 가요? 스티브, 나 한가해요.
- 대신 가줄래요?
- 정말 고마워요.
- 치과 가고 싶어요?
- 내가 가줄게요.
- 좋죠.
- 주소예요.
- 좋아요.
- 딱 좋네요.
- 의사 이름이고요.
- 4시 반이네요. 스티븐, 정말 고마워요.
- 천만에요. 정말 괜찮아요?
- 그럼요, 고맙죠. 치과라니, 좋네요. 이만 가야겠어요. 미안해요 스티브.
- 스티븐이요.
- 네, 스티브. 치과에 가야 해요. 늦었어요. 고마워요. 실례할게요.
- 그래요, 늦지 말고요.

ep.2

캘리포니아 어딘가.

-- 는 이기팝스,
- 는 톰 웨이츠의 말이다.

(홀로 주크박스를 만지고 있는 이기 팝스.)

(자리를 돌아와 커피를 마시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.)

- 이기.

- 반가워요, 톰.

- 네. 와줘서 고마워요. 정말 왔네요.

- 네. 그냥 짐이라고 불러요. 내 친구들은 짐이라고 하거든요. 지미나 이기 아니면 징기.

이기라고 불러요. 이기로 하죠.

- 좋을대로 해요. 짐이든 이기든.

- 이기. 이기라고 불러요.

- 늦어서 미안해요, 짐. 세상에, 차 4대가 충돌해서요. 아침 9시쯤엔 아기도 받았고, 고속도로에서 사람 생명을 살렸는데…길바닥 수술만큼 최악도 없죠. 수술 도구가 없으니까 살인 행위나 다름없어요. 볼펜으로 기관절개술을 시행했다니까요. 엄청 바빴죠.

- 잠깐만요, 의사예요?

- 네, 의사예요. 음악과 의학이 내 분야죠. 그 두 가지가 합쳐진 삶을 살고 있는 셈이에요.

사람들은 그게 내 음악에 표출된다는데, 잘 모르겠어요.

- 그렇군요.

- 네.

- 이제 알겠어요.

- 그래요?

- 이야. 네. 그 조직하며 전부 다요. 인간적인 면이며… 인간적인 면도 물론 그렇고요.

배려심도요.

- 맞아요.

- 힘든 하루였겠어요.

- 네, 의학의 아침이었죠.

- 다 무사한가요?

- 무사해요.

- 뭐…

- 온지 꽤 됐나봐요.

- 네,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.

- 그래 보여요.

– 주문해뒀어요.

(정적이 흐른다)

(자신을 위해 미리 커피를 주문했다는 이기를 잠시 빤히 쳐다보는 톰)

- 내 걸 주문했다고요?
- 팬찮다면요, 팬찮죠?
- 네 그럼요, 커피요. 커피 팬찮죠.
- 좋아요. 커피 한 잔 해요.

<테이블 부감 솟. 직사각형 체커보드 상판. 마주 보며 앉은 두 사람 앞의 커피 2잔. 그 가운데 크리머 혹은 우유가 담긴 작은 주전자가, 각 잔 옆에는 냅킨이 있다. 커피는 전기포트 서버에 담겨 있다. 테이블 양 끝에는 각각 유리 재떨이와 설탕이 담긴 조그마한 병이 놓여있다. >

– 커피예요.

<테이블 부감 솟. 직사각형 체커보드 상판. 마주 보며 앉은 두 사람 앞의 커피 2잔. 그 가운데 크리머 혹은 우유가 담긴 작은 주전자가, 각 잔 옆에는 냅킨이 있다. 커피는 전기포트 서버에 담겨 있다. 테이블 양 끝에는 각각 유리 재떨이와 설탕이 담긴 조그마한 병이 놓여있다. 그리고 말보로 한 팩.>

- 당신 담배인가요?

– 아뇨, 여기 놓여 있었어요. 담배 안 피우죠?

- 끊었어요.

– 나도요.

- 끊을 때 됐죠.

– 그럼요. 25년을 피웠으니.

- 끝이에요.

– 지금은 활력이 넘쳐요.

- 기분이 좋죠.

– 금연한 후론 모든 것들이…

- 집중되죠.

– 초점 맞추 듯이요. 뻥!

- 나도요.

– 아직 담배 피우는 놈들 참 한심해요.

- 의지 박약아들.

– 맞아요, 고무 젖꼭지처럼.

- 담배를 끊어서 가장 좋은 점은… 다시 피울 수 있단 거죠. 왜냐하면 끊었으니까. 보석이랑 비슷해요. 그러니까…(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) 진짜 들이마시진 않아요.

한 대 할래요?

- 그러죠, 끊었으니깐.
- 그래요. 좋아요.
- 끊었으니까.
- 피울 수 있는 거죠.
- 네. 맞는 말이네요.

(담배를 즐기는 두 사람)

- 좋네, 고마워요.

- 뭔 말인지 알죠? 우린 담배를 끊었으니까.
- 담배와 커피라… 환상의 조합이죠. 아무도 못 따라와요.
- 우린 커피와 담배 세대예요. 40년대는 파이와 커피 세대잖아요.
- TV에 나오는 애보트와 코스텔로도 매번 파이와 커피를 주문하죠.
- 맞아요, 애보트와 코스텔로요. 항상 파이와 커피를 주문하죠. “커피 마셔. 파이랑 커피 먹어! 뭘 기다리는 거야?”

- 여기 자주 와요?

- 네, 내 단골 집이에요.

- 주크박스에 당신 노래가 없길래요.

-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타고 벨 같은 데로 갈까요? 거길 더 좋아하려나?
- 무슨 말이에요? 그러니까… 난 타코 벨에 어울린단 말이에요?
- 아뇨, 내 말은, 혹시 여기가 싫으면… 여기 싫다면서요?
- 아뇨, 그런 말 안 했어요.
- 아니면 팬케이크 집에 가든지요. 그게 더 당신 스타일이려나?
- 그런 말 안 했어요. 팬케이크에 가고 싶지 않고요. 여기 좋아요.

- 팬케이크 집 커피도 팬찮긴 하죠.

- 팬케이크 집 커피 좋아해요?

- 거기서 커피 마시곤 해요. 커피 좋아하거든요. 당신을 싫어해요?
- 좋아하죠. 나도 거기 커피 좋아요.
- 원두가 좋죠.
- 네, 팬찮죠. 거기 커피 팬찮아요

- 맞다, 깜빡했네. 들어봐요. 지난번 LA에서 웬 드러머랑 작업했는데 이름이 자이언트 로보란 작자였어요. 드럼을 아주 열정적으로 두드립니다. 당신 생각이 나더라고요. 꼭 한번 만나봐요.

- 그래요? 그러니까… 나한테 전문 드러머가 필요하다? 내 실력이 별로라서? 무슨 말이에요?

- 아뇨, 내 말은… 그냥 뮤지션끼리 이런 친구가 있다고 말해준 거예요. 좋잖아요. 열심히하고 열정적이고 실력도 좋으니까 내 생각엔…

- 그래서 뭐요? 내가 드러머가 필요하다? 드러머를 고용해야한다? 지금 내 실력은 영

아니니까?
— 관둬요, 관둬.

(어색한 적막. 서로를 마땅치 않게 노려보는 둘)

<테이블 부감 솟. 직사각형 체커보드 상판. 마주 보며 앉은 두 사람 앞의 커피 2잔. 주변에 크리머가 담긴 주전자가, 냅킨, 서버에 담긴 커피, 재떨이, 말보로 한 팩, 설탕 병이 놓여있다. 이기의 컵은 비워져 젖은 휴지가 깔린 찻잔 받침에, 톰의 컵은 커피가 아직 그득한 채로 놓여진다. >

— 저기, 이만 가봐야겠어요.
- 간다고요? 한 잔 더 할래요? 한 대 피우든가?
— 그리고 싶은데, 아뇨, 가야겠어요. 진짜 가야 해요. 마누라가 혼자 모텔에 있어요.
- 그래요?
— 네. 전화해서 오라고 해요. 같이 커피랑 담배하죠.
- 담배 안 피워요
— 아.
- 의지가 대단하죠.
— 그렇군요.
- 시작 안 했으면 해요.
— 그렇죠.
-, - 시작하지 말아야죠.
— 우리만 알고 갑시다.
- 그래요.
— 자, 그럼…빨리 빨리 움직여야죠. 그쪽 생각 많이 할게요. 같게요.

- 그래요.

— 또 봐요.

(자리에서 일어서는 둘)

- 그럼시다. 더 있다 가면 좋겠는데.

— 그게 좀…

(악수할 자세를 취하는 둘)

- 막 친해지려던 참인데.

— 가야 해요.

- 그래요. 가요, 짐.

— 또 봐요.

- 그럼시다.

(이기가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리고, 이번에는 혼자 남겨진 톰이 쥬크박스를 체크한다)

- 지 노래도 없구만.

ep.3

그게 자네를 죽일 거야.

-는 조셉 리가노,

-는 비니 벨라의 말이다.

- 자넨 머저리야. 알아?

- 뭘 알아?

- 그 빌어먹을 걸 아직도 피우다니. 비니, 그러다 골로 가. 그게 자넬 죽일 거라고.

-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대?

- 끊겠다더니 오히려 더 피우잖아. 담배 회사만 부자 만들어주고 자넨 암 걸리겠지.

(잔소리가 늘어지는 동안…)

<테이블 부감 솟. plaid 패턴의 천이 씌워진 원형 테이블. 반쯤 비워진 2잔의 커피. 펼쳐진 접시 형태의 유리 재떨이. 측면이 붙여져 있는 조미료 통. 물 한 잔씩. 비니 앞에는 marvels 담배가, 조셉 앞에는 커피 서버가 놓여 있다>

- 빌어먹을 의사들이랑, 간호사들도. 덩달아 부자 될 테고. 장의사들도!

왜냐하면 자네가

담배를 빽빽 피워대니까.

- 중독된 걸 나더러 어쩌라고?

- 커피랑 담배가 자네 점심 메뉴야? 건강에 해롭잖아.

- 자네도 커피 마시면서 나한테만 난리야?

- 비니, 난 점심 먹었잖아.

- 난 다이어트 중이야. 젠장할.

(풍경이 흔들리며 문이 열리는 소리)

- 젠장, 우리 손주 왔잖아. (피려던 담배를 도로 넣어 놓는다)

네 엄마한텐 말하지 마라. 내가 왜 눈치를 봐. 걔도 골초인데.

- (비니의 손주와 악수하며) 잘 지냈니?

(손주가 대답없이 고개를 끄덕인다).

- 원래 말이 없지?

- 요즘에 조용해졌더라고.

(손주가 돈을 달라는 제스처를 취한다)

- 어젯밤에 10달러 줬잖아!

<테이블 부감 솟. plaid 패턴의 천이 씌워진 원형 테이블. 반 쯤 비워진 2잔의 커피.
 손주에게 돈을 건네는 비니>

(손주가 5달러를 건네 받고는 5달러를 더 달라는 제스쳐를 취한다)

- 방금 5달러 줬잖아! 1 달러 더 줄게. 끝이야.

한 번 안아주고 가야지.

(자리를 떠나려는 손주)

6달러나 줬는데 안아주지도 않아?

(양 손을 펴 '10'을 보이는 손주)

- 10달러 주면 안아준다고? 이 자식 이거 미쳤네. 알았어, 이리 와 그럼…

(손주가 쌩 가버린다)

그걸로 몸에 좋은 거 사먹어.

- 그래 네 할비처럼! 커피랑 담배 먹어라!

- 아, 뭔 소리 하는 거야? 네가 커피 얼마나 마셨는지나 봐. 그 주전자 통째로 다 마셨잖아?

- 그래서? 원래 주전자로 갖다주잖아. 난 커피가 좋아. 내 활력소라고.

- 그렇겠지. 넌 중독자야. 카페인 중독자.

- 너도 커피 마시잖아?

- 그래.

- 그런데?

- 너도 커피 끓어보든가!

- 이봐, 난 쉽게 포기하지 않아.

<테이블 부감 솟. plaid 패턴의 천이 씌워진 원형 테이블. 반 쯤 비워진 2잔의 커피.>

(건배! 커피 잔을 부딪히고 각자 한 모금 들이 마신다)

(담배를 태우려는 비니)

- 못난 놈.

(외출한 손주가 다시 돌아온다)

- 빌어먹을. 또 저 놈이잖아. (피려던 담배를 놓는다)

얼마 썼어?

(손주는 또 다시 말 없이 손으로 숫자 '4'를 보인다)

그딴 걸 4달러나 줬다고? 완두콩이랑 음료수 따위가 4달러야?

- 뭔데 그래?

- 중국 완두콩이야

(고개를 젓는 손주)

- 아니야?

(손주가 양 손으로 눈을 찢어 올리는 얼굴은 한다)

일본인가?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게 그거지.

(손주가 조셉에게 콩은 권유하는 제스처를 한다)
- 먹어 봐.

(씹다 뱉어버리는 조셉)
(비니와 손주가 웃는다)

- 젠장. 후추 맛이잖아! 이리 내! 고약한 놈. 방금 봤어? 저 놈이 날 골탕 먹였어!
- (연신 웃으며) 아니야, 조. 들어 봐. 저거 비싼 거야. 고급 간식거리라고.
 - 고급 간식 좋아하네.
- (담배를 태우는 비니)
 - 미친 놈, 또야?
- 편하게 담배 한 대 피우면 안 되겠냐?
- 그거 알아? 넌 정말 머저리야. 네 놈이 땅에 묻히는 날 담배 회사에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마.
- 왜 필요도 없는 마누라 행세야? 담배 맛도 못 보게 하네.

ep.4
문제 없어.

—는 알렉스 데스카,
-는 이삭 드 번콜의 말이다.

(먼저 와서 혼자 커피에 담배를 태우고 있는 알렉스.)

(이미 친구를 위해 한 잔을 시켜놓고,
한 잔은 다 마셔 2번째 잔을 즐기고 있다. 테이블에 주사위를 굴리고 있다.)

<테이블 부감 솟. 정 사각형의 체스보드 같은 격자무늬 테이블. 커치 3잔과, 재떨이용 도자기 그릇, 소금과 후추, 설탕, 냅킨이 채워진 은색 냅킨 보관함이 있다. 알렉스가 이삭을 위해 티스푼 아래 냅킨을 깔아 두었다. 담배는 카멜 한 팩>

(두 사람 모두 불어로)

- 알렉스?
- 놀랐잖아.
- 어떻게 지냈어?
- 잘 지냈지.
- 이렇게 보니깐 정말 좋다. 파리가 정말 지긋지긋했거든.
- 앉아.

(두 사람 모두 영어로 대화한다.)

- 네 전화 받고 정말 반가웠어.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.
- 네 커피 주문해놨어. 괜찮지?
- 당연하지, 고마워. 별일 없는 거지?
- 그럼. 아무 일 없어. 아주 좋아. 잘 지내.

(대답한 알렉스를 빤히 쳐다보는 이삭)

(이내 이삭과 알렉스가 커피 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한 뒤 커피를 들이킨다)

- 너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야?
- 그래. 아무 일 없어.

<테이블 부감 솟. 정 사각형의 체스보드 같은 격자무늬 테이블. 알렉스 편에 커피 2잔이, 이삭 편에는 한 잔이 놓여있다. 주변에는 재떨이용 도자기 그릇, 소금과 후추, 설탕, 냅킨이 채워진 은색 냅킨 보관함이 있다. 알렉스가 이삭을 위해 티스푼 아래 냅킨을 깔아 두었다. 카멜 담배 한 팩이 알렉스 편에 놓여있다.>

- 너는?

- 나? 나는 괜찮지. 완벽하진 않지만 꽤 괜찮은 편이야.
 - 잘됐네. 너 보니까 좋다.
 - 나도 너 보니까 좋아.

 - 연락 안 한 지 꽤 오래 됐는데 네가 만나자고 연락을 했길래 무슨 일이 생겼나 했어.
 - 아냐, 그냥 보고 싶었어. 그게 다야.
 - 나도야. 나도 보고 싶었지.

 - 정말 하고 싶은 말 없어?
 - 왜 그래? 뭐가 잘못됐으면 좋겠어?
 - 이봐, 그럴리가. 내가 전화를 받았을 때 웬지 모르게 네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.
 - 그게 다야.
 - 이삭, 고민 같은 거 없어. 정말이야. 됐지?
 - 정말이야?
 - 너 미쳤니, 이삭?
 - 너 정말 아무것도…뭐…털어놓을 거 없어?
 - 지어내서라도 말해줄까?
 - 아냐, 그런 걸 바라지 않아. 난 네 절친이잖아. 뭐든 솔직하게 다 말해도 된다니까.
 - 뭐 때문에 고민인지 말이야.
 - (불어로)
 - 그만 좀 하라니까.
 - (영어로)
 - 알았어, 알았다고, 그만할게.
 - 난 가봐야겠다.
 - 정말, 벌써?
 - 뭐, 네가 얘기를 안 하겠다는데 괜히 문제 만들긴 싫어.
 - 문제가 정말 없어, 이삭. 이해가 안 돼? 문제 없다고.
 - 이해해. 근데 있잖아…지금 얘기하기 싫거니 아무 때나 전화해.
 - (짜증이난 알렉스. 안경을 벗는다)
 - 오늘은 네가 준비 안 된 거겠지.
 - (떠날 준비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선다)
 - 만나서 반가웠어.
 - 그래, 나도. 실망시켜서 미안하다. 근데 아무 문제 없어 정말이야.
 - 괜찮아. 이해해.
 - 아니, 넌 이해 못해.
 - 전화해, 알렉스
 - 또 보자 아이삭. 조만간.
- (알렉스가 자리에 돌아와 다시 주사위를 굴리며 담배를 태운다)'

<테이블 부감 솟. 정 사각형의 체스보드 같은 격자무늬 테이블. 알렉스 편에 커피 2잔이, 이삭 편에는 한 잔이 놓여있다. 주변에는 재떨이용 도자기 그릇, 소금과 후추, 설탕, 냅킨이 채워진 은색 냅킨 보관함이 있다. 알렉스가 이삭을 위해 티스푼 아래 냅킨을 깔아 두었다. 카멜 담배 한 팩이 알렉스 변에 놓여있다.>



ep.5
사촌이라고?

-는 스티브 쿠건,
-는 알프레드 몰리나의 말이다.

(조용한 카페 2층의 프라이빗 한 공간. 알프레드 몰리나가 먼저 차를 시켜놓고
스티브를 기다리고 있다.)

(알프레드가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는 것으로 장면이 시작된다.)

- 여보세요? 누구시죠?

- 로라, 안녕하세요. 알프레드 몰리나예요. 스티브 쿠건 찾았던…(조금의 정적)
알프레드 몰리나요. M.O.L.I.N.A
- 배우 맞아요. 확인 좀 하려고요 스티브가…그래요? 아, 잘됐네요. 혹시 모르니까
제 번호가…(전화가 끊긴다) 여보세요?

(스티브가 씬으로 입장한다)

- 안녕하세요.

- 스티브! 어서와요. 정말 반갑네요. 앉으세요. 비서랑 통화중였어요. 로라요. 오시는
중인지 확인차 전화했죠.

- 왔습니다.

- 좋네요. 제멋대로 차를 우선 주문했어요. 따라드릴까요?
- 제가 직접 하죠.
- 여기 우유도 있어요.
- 진짜 홍차네요.
- 네].

- 구하기 힘들죠. 전 이런 로망이 있어요. 제가 골든 글로브나 아카데미 상을 타면
미국인들한테 홍차에 대해 가르치는 거죠.

(스티브가 웃는다)

<테이블 부감 솟. 원형 체크보드 타일 테이블 위 견고한 세라믹 차 주전자,
우유 저그, 두 잔의 우유를 탄 홍차와 각 잔마다의 소서 그리고 티 스푼이 놓여져 있다.
테이블 중앙에는 동일한 세라믹 제형의 각설탕이 듬뿍 담긴 접시와 버터 비스킷이
담긴 접시가 있다>

- 훌륭한 홍차를 위하여.
- 건배.

- 코트가 참 멋지네요.

- 비비안 웨스트우드예요. 제가 영국 디자이너한테 좀 약하거든요. 미국 디자이너들은 뭐랄까… 너무… 안전해요.

- 좀 덥지 않아요? 밖이 29도쯤 되던데.

- 밖에선 벗어요.

- 아!

- 에어컨 때문에요.

- 그렇군요.

(정적. 두 사람 모두 차를 마신다.)

- LA에선 얼마나 살았어요?

- 7년정도 살았어요. 아주 좋아요. 만족하죠.

- LA에 오는 것은 즐기죠. 하지만 늘 이렇게 말해요. ‘놀러 오기 좋은 곳이지만’ ‘떠나기엔 더 좋은 곳이다’. 야자수 하며…야자수가 정말 거슬린다니까요.

- 호불호가 있겠죠. 전 좋더라고요. 가족이랑 왔는데 일하기에도 좋고 뭐…
(정적. 두 사람 모두 차를 마신다.)

- 드디어 만나게 돼서 정말 좋네요. 정말 팬이거든요. TV 출연한 것도 다 봤어요. 코미디 프로요. 테이프도 다 있고요. 전부 구입했죠. 굉장히요.

- 고맙네요.

(정적)

- 네, 저도…마찬가지예요. 저도 당신에 대해 아주 잘 알죠.

- 좋네요.

- TV 시리즈도 봤어요.

- 정말요. 그걸 봤어요?

- 네, 재밌던데.

- 취소됐어요.

- 네, 들었어요… 코미디가 참 어렵죠.

- 네.

(정적. 두 사람 모두 차를 마신다.)

- 연기 경력이 아주 잘 풀리시던데요. 요즘 전성기 아닌가요?

- 뭐….

-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?

- 뭐…

- 끊임없이 미팅만 하러 온 거죠. 그래도 사람들이 ‘드디어’ 좀 알아봐주니깐 그나마 좀 좋아요.

- 재밌는 미팅은 없었어요?

— 네.

(정적. 두 사람 모두 차를 마신다.)

- 이 말은 꼭 해야겠어요. 당신 정말… 끝내줬어요. ‘24시간 파티하는 사람들’은
최고였죠. 굉장히 훌륭해요.

— 고맙네요.

- 정말로요. 리뷰들도…

—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.

- 제가 놀랐던 건 특하나… 그 모든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기란 어렵잖아요.
맨체스터, 80년대 초반 음악계의 전반적인 것들까지.

— 쉽지 않죠…

-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소화한다는 게… 왜냐하면… 여기 밴드도 잘 알면서…
당신 캐릭터는 TV쇼도 하면서…

— 담배 피울래요? 프랑스제예요.

— 고마워요.

(스티브가 알프레드에게 라이터를 건네 주려 한다)

- 나중에 피우려고요.

— 그래요.

(정적. 두 사람 모두 차를 마신다.)

— 로라가 말하기를, 이번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셨다고… 그 이상은 말 안 하던데요.

- 전화로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릴 테니까요. 갑자기 터트리면 어떻게 생각할지
뻔하죠. 아무튼 다짜고짜 전화해서 스티브 쿠건과 할 얘기가 있다고 했죠. 꼭 직접
만나고 싶었는데, 여기 며칠 머문단 걸 알게 됐고,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.
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죠. 정말 흥분되네요. 설명을 시작할게요.

전 항상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.(귀담아 듣지 않는 스티브)

사람들의 삶이나. A에서 B까지의 길에 일어나는 모든 작은 사건들도요. 우리 삶의
작은 조각들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.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…
아무튼…

<테이블 부감 솟. 원형 체크보드 타일 테이블 위 견고한 세라믹 차 주전자,
우유 저그, 두 잔의 우유를 탄 홍차와 각 잔마다의 소서 그리고 티 스푼이 놓여져 있다.
테이블 중앙에는 동일한 세라믹 제형의 각설탕이 듬뿍 담긴 접시와 버터 비스킷이
담긴 접시가 있다. 테이블 위로 알프레드가 서류를 건넨다>

-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.

— 그래서… 암이에요? 아니면 치료 받아요? 몇 기인데요?

- 미안해요, 창피하네요. 이건… 건강 검진 같은 건 전혀 아니에요. 검사랑 상관 없어요.

제가 족보 연구를 좀 했는데,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게 뭐냐면…
(스티브 쿠건을 알아본 여성 팬이 이들의 테이블로 접근한다)

--는 여성 팬의 말이다.

-- 쿠건 씨?

- 네?

-- 그 분 맞죠? 저 광팬이에요.

- ‘광’해 보이진 않네요.

(즐겁게 웃는 스티브 쿠건과 여성 팬)

- 진정한 팬인걸로 하죠.

-- 싸인 좀 해주시겠어요?

- 물론이죠.

-- 좋아라.

- 알아보는 분이 있네. 어디에 해줄까요?

-- 종이에 해주세요.

- 실망스럽네. (종이가 없는 스티브는 알프레드가 준비해온 서류를 사용하려 한다)

- (서류를 가로막으며) 아뇨, 안 돼요.

- 미안해요.

-- 가방에 있을 거예요.

- 좋아요.

-- 잠시만요. 이런, 미안해요.

- 팬찮아요.

-- 잠깐만요.

- 천천히해요.

-- 여기요. 싸인 부탁해요.

- 이름이 뭐죠?

-- 케이티요.

- 케이티.

-- ‘Y’로 끝나요.

- 좋아요. 케이티 씨에게.

-- (알프레드를 향해) 안녕하세요.

- 알프레드도 배우예요. (싸인된 종이를 건네주며) 여기요.

-- 고맙습니다. 정말 감사해요.

- 천만에요.

(여성은 떠난다)

- 우와.

- 하던 얘기하죠. 시간을 많이 뺏고 싶지 않거든요. 바쁘실 테니까.

— 하세요.

- 족보 연구를 했어요. 그냥 취미 삼아 한 일이지 특별한 목적은 없었고요 암튼 이걸 찾았죠. 짧게 말할게요. 스티브 쿠건. (입으로 드럼 효과음 소리를 내며) 드럼 소리 부탁해요. 있잖아요 스티브. 당신과 내가 사촌이에요.

— 무슨 말이에요? 예술적으로?

- 아니요, 일반적으로요. 우리가 사촌이라고요. 친척이요.

— 와우.

- 굉장하죠?

— 네, 확실해요?

- 그러니까 설명하자면…

<테이블 부감 솟. 원형 체크보드 타일 테이블 위 견고한 세라믹 차 주전자, 우유 저그, 두 잔의 우유를 탄 흥차와 각 잔마다의 소서 그리고 티 스푼이 놓여져 있다. 테이블 중앙에는 동일한 세라믹 제형의 각설탕이 듬뿍 담긴 접시와 버터 비스킷이 담긴 접시가 있다. 테이블 위로 알프레드가 서류를 펼쳐 설명을 시작한다.>

- 내 고조할아버지가 당신의 종종할아버지예요. 더 위로 올라가면 우린 현조할아버지가 같아요.

— 우리 조상은 아이랜드계인데 이탈리아인이 하나 있다고…

- 맞아요. 그 이탈리인이 우리의 현조할아버지 쥬세페예요.

— 우와

- 굉장하죠?

— 디테일이 엄청 나네요.

<테이블 부감 솟. 원형 체크보드 타일 테이블 위 견고한 세라믹 차 주전자, 우유 저그, 두 잔의 우유를 탄 흥차와 각 잔마다의 소서 그리고 티 스푼이 놓여져 있다. 테이블 중앙에는 동일한 세라믹 제형의 각설탕이 듬뿍 담긴 접시와 버터 비스킷이 담긴 접시가 있다. 테이블 위의 서류.>

- 제가 좀 그래요. 깨알 같죠.

— 대단하시네.

- 정말 신나는 일이죠. 내가 스티브 쿠건과 친척이라니.

— 마찬가지죠. 알버트 몰리나와 친척이라니.

— 알프레드요.

- 네. 우리 할머니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신데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. 당신 팬이세요. 그거 좋아하셨는데…'부기 나이트'

— 아, 핫팬츠에 엽총 들었던 거요?

— 네, 그거 얘기하셨어요.

- 좋네요. 너무 갑작스럽겠지만, 가능성을 생각해봐요. 놀랍잖아요. 사실만

나열해보죠. 우린 둘 다 배우고, 우린 사촌이죠. 그러니까 같이 일해볼 수 있잖아요. 연극을 한다거나, 아니면 영화도 좋죠.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도 되고요. 우리가 사촌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요. 서로 사촌이란 걸 알게 된 두 배우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직접 연기해도 돼요. 난 알프레드, 당신은 스티브 우린 사촌인 거예요. 영화 속에서요! 끝내주잖아요! 굉장히 거예요, 정말!

(정적)

뭐, 아니면 말고요. 그냥 우리끼리 놀아도 돼요.

- 그래요, 나중에 같이 술 마시러 가죠.

- 여행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. 서로 친해질겸 둘이 떠나는 거죠.

(스티브는 당황스러워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린다)

- 혹시 게이는 아니죠?

- 아뇨, 아니에요. 난 유부남이에요.

- 제임스 1세도 그랬죠. 이런, 미안해요.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.

'어서 말해버려' 뭔 줄 알죠?

- 이해해요. 정확히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. 누가 나타나서 사촌이라고 하면 나라도 미치광이로 보겠죠. 하지만 믿어줘요, 그런 것이 아녜요. 그저 나한테는 아주 멋지고 신나고 즐거운 일이란 걸요.

- 그럼요.

- 알아줬으면 해요.

- 나도 그래요.

-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, 우리의 특별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…
날 사랑해 줘요.

(정적이 흐른다. 스티브는 여전히 당황스러워한다)

- 네, 그러죠.

(알프레드가 웃음으로 답한다)

- 이만 가봐야겠어요. 내가 말 안 했나요? 미팅이 있는데, 꽤 진전된 건이에요.
- 그렇군요.

- 유니버설에서도. 분석가들에 투자자들까지. 그래서…(서류를 가르키며)

그럼 이건…

- 가져가요.

- 그래요.

- 당신 거예요.

- 잘 보관해 놓을게요.

- 네, 그래요. LA에 며칠 있을 거죠? 가기 전에 또 봐요.

- 네, 어디 보자. 머릿속 일정표를 뒤져볼까. (생각 중인듯 한 스티브) 이거 안 좋네,
안 좋아. 여기 있는 동안 일이 꽉 찼어요.

- 이해해요.

- 죄송해요.

- 걱정 말아요. 번호 알려주면 가기 전에 전화할게요.

- 사정이 있는데. 그게…그…미국은 트라이밴드 시스템이…그게 다르거든요.

영국 시스템은 그게 아니라서…영국 핸드폰이 안 터져요. 미국만 오면 핸드폰이 없는 거죠.

- 그렇군요. 집 전화번호 알려줘요. 전화할게요.

- 제 비서 번호 알죠?

- 네.

- 그럼 됐네요!

- 그냥 집 번호 알려주면 안 돼요?

- 싫다고 하면 안 될까요? 왜냐하면 절대로 결코 다른 이유는 없고…저는 원래 전화번호를 절대로 남한테 안 알려줘요.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려고 하죠. 사실 규칙보다는 철학이 맞을 거예요. 단언컨대 지금껏 많은 거물들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어요. 언제는 샘 멘데스에게도 안 알려줬죠. 당신도 동급인 거예요.

- (실망한 기색을 띠며) 샘 멘데스한테 그랬다면 나도 받아들여야죠.

- 네.

(알프레드의 전화벨이 울린다)

- 내 전화네요.

- 아, 내 전화는 안 터지니깐. 그렇죠.

- 미안해요, 이건 받아야겠어요. (전화를 받으며) 여보세요?

(알프레드는 씬 밖에서 전화를 받고, 이번에는 스티브 쿠건이 혼자 남아있다)

- 스파이크, 그래. 잘 있었어?

('스파이크'에 스티브가 반응한다. 알프레드의 전화를 귀담아듣기 시작한다)

- 메세지 받았구나. 자네도 같은 생각인지 알고 싶어서. 아니, 프로듀서는 자네랑 나뿐이지. 전부 다 살필 수 있으니까. 예술적 진실성 같은 거 말이야. 아니면 전부 놓칠 수 있어.

(알프레드가 호탕하게 웃는다)

- 이런 나쁜 자식. 알았어. 일요일 팬창은 거지? 좋아, 알았어. 거기서 만날까?
그래. 일찌감치 보자고. 그래, 사랑해. 끊어, 스파이크.

(전화를 마친 알프레드가 자리로 돌아온다)

- 미안해요.

- 아뇨, 괜찮아요. 저기, 음… 방금 스파이크 리였어요?
 - 아뇨, 아뇨. 스파이크 리는 몰라요. 스파이크 존즈요.
 - 스파이크 존즈?
 - 네.
 - (상기된 얼굴로) 정말 좋아하는데!
 - 참 좋은 친구죠. 아주 오래된 친구 사이예요. 둘 다 하이킹을 좋아하는데…지루한 얘기예요.
 - 아뇨, 계속해요.
 - 같은 클럽 멤버거든요. 주말마다 하이킹을 해요. 그 친구는 열정적인 환경 운동가고요.
 - 스파이크 존즈가 ‘트리허거’라니. 맙소사. 그럴 줄은 몰랐는데.
 - (다소 불쾌한 얼굴로) ‘리프피플’이라고 불러주길 바랄 거예요. 나도 그렇고요.
 - (당황해하며) 그래요, 내말은… 오해 말아요. 좋은 일이죠. 나도 나무 좋아해요.
 - 당연히 나무가…더 있어야죠. 종이 쓸 때도 양면 다 써요. 저기, 지금이라도…
 - 전화번호에 대한 거지 같은 규칙이랑 아까 했던 혀소리를 다 취소할까 하는데…
 - 지금 전화번호 알려주면 너무 속 보일까요?
 - (찻잔을 들며) 네.
 - 그래요. 알겠어요.
 - 난 가봐야겠어요. 미안해요.
 - 내가 계산하죠.
 - 좋아요.
- (알프레드가 떠난다)
- 젠장.